



노동개악 끝낼 때까지 총파업 태세 유지!

연말까지 노동개악 시도

임시국회가 연말로 달려가면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여야는 연일 협상을 벌이며 각종 법안 처리를 논의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이 관심을 끌고 있지만, 노동법 개악 등 우리 삶을 뒤흔들 법안도 수두룩하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비정규직 관련 법안 (기간제법, 파견법)과 고용보험법을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노동법 개악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알 수 없다. 국회가 끝날 때까지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총파업 태세 그대로 유지한다

2015년을 딱 4일 남겨두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안에 노동법을 개악시키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제 그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 제대로 대화나 협의 한 번 없이 어떻게 법안을 통과시키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일방통행만 해온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보면 결코 방심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국회 상황을 주시하며 28일(월) 지역별 결의대회를 열고, 29일(화) 금속노조 확대간부를 중심으로 제조공투본 결의대회를 국회 앞에서 개최한다. 31일(목)에는 국회 직권상정이 시도될 우려가 있어 전국 동시다발로 지역별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마지막까지 반드시 승리한다

노동개악과의 싸움이 1년을 넘게 이어졌다.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년 1월 8일까지는 긴장을 놓을 수도 없다. 올해 민주노총의 총파업 3차례를 비롯해, 민중총궐기 3차례까지 쉼 없이 싸워왔다. 특히나 연말에는 국회 상황과 맞물려 투쟁이 집중되고 있다. 길고 힘든 투쟁에 자칫 지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정권에 맞서 당당히 싸웠고 이겨왔다. 올해 상반기 안에 노동개악을 마무리하려던 정권은 우리의 투쟁에 밀려 연말까지 왔다. 연내 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 우리의 마지막 힘이 필요하다.

쟁의행위에 손해배상?

대전고등법원이 유성기업 노동자 13명에게 쟁의행위로 인한 손실 10억 1,1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단체협약도 무시하고 손실금액도 제대로 입증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속노조는 2004년 중앙교섭을 통해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 압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기존의 판례들은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이 유성기업의 손을 들어주면서 노사간의 합의사항을 무시했다.

손실 금액은 더 황당하다. 유성기업은 쟁의행위가 있던 2011년 매출액이 저년도 보다 증가했다. 현대, 기아차의 생산차질이나 그 금액은 정확히 산출하지도 못했다. 그런데도 법원은 사측의 청구금액을 받아들였다.

손해배상은 노동자를 탄압하는 가장 악질적인 방법이다. 사회적 비난도 쏟아졌다. 대전고법의 이번 판결은 노동자 죽이기에 동참한 것이다.

유성기업 손배 판결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5.12.28(월) 11시
장소 : 대전고등법원 앞

업무방해 고소 규탄! 한온시스템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5.12.29(화) 11시
장소 : 한온시스템 앞